

6월 항쟁 20년

## 전공 살려 평범한 삶 속으로

**20**  
6월 민주항쟁  
1987-2007

20대 젊은이  
로 6월 항쟁의  
중심에 섰다가  
20년이 지난 오  
늘, 평범한 소시  
민으로 살아가는 숨은 주역들이 있  
다. 항쟁 이후 정계·공직·시민운동  
에 뛰어든 사람들도 많았지만, 더러  
는 전공을 살려 평범한 삶을 선택했  
다.

지난 87년 5월 조선대 학내 민주  
화 투쟁과 6월 항쟁을 이끌었던 백  
영권(42·당시 의과대학 본과 1년)  
씨는 지금 '고향 윤호 21 병원'의 부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조선대 총학  
생회 건설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는  
총장 퇴진과 학내 민주화 집회 과정



조선대 학내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백영권씨. 오른쪽은 87년 조선대 운동장서 열린 학내 민주화운동 집회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모습 (사진 가운데).

## “누군가는 앞장서야”

에서 차량 10여 대를 방화한 혐의  
로 수배자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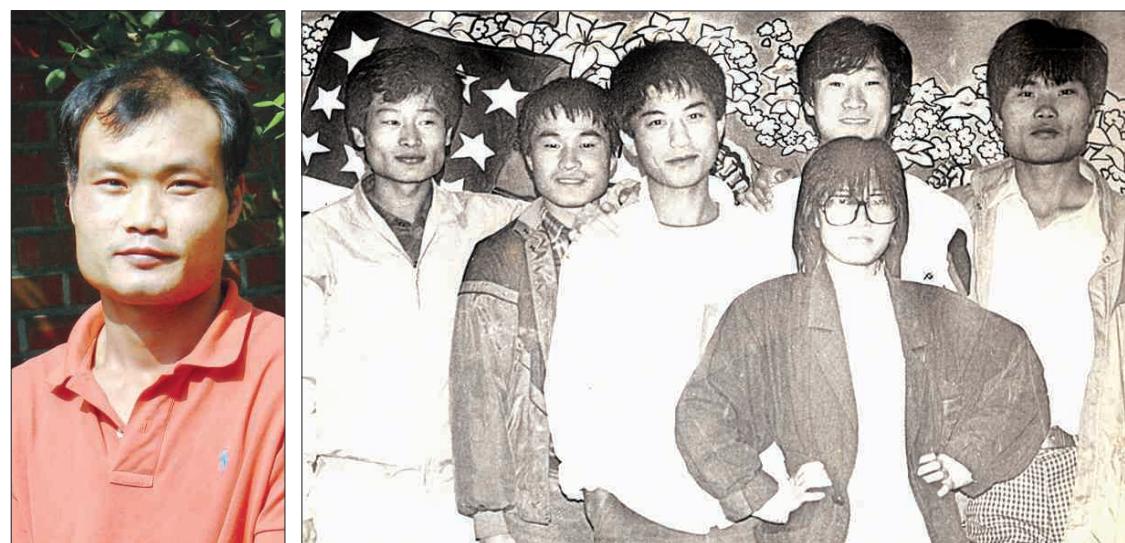
“수배 중 전남대에서 열리는 6·  
10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40여 명의 조선대생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이들을 이끌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의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키우고  
있는 경찰과 교직원 몰래 학교에 들어갔다. 중간고사 시험을 보던 의대  
생들에게 “학교 민주화와 우리나라  
민주화를 함께 이뤄내자”고 호소했  
고, 그의 외침은 의대·치대 학생들  
의 중간고사 거부 운동으로 이어졌다.  
87년 6월 초까지 거리 시위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조선대 학생  
들은 이후 3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백씨는 1988년 1월 박철웅 총장을  
퇴진시키는 구심점이 됐으나, 정  
연 2년 6개월·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의대를 졸업한 것은 입학  
10년 만인 93년.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까닭에 자격이 정지돼 전  
남지방 한 시골 병원 응급실에서 2  
년간 ‘몰래 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 “그때의 삶 후회 안해”

전남대 ‘자위대’(오월대 전신) 소  
대장이었던 박수본(40·당시 토목  
과 2년)씨는 전공을 살려 ‘미도 건  
설’(주)을 경영하고 있다. 박씨는



87년 6월 항쟁 당시 전남대 학생 ‘자위대’ 소대장이었던 박수본씨. 오른쪽 위는 당시 ‘자위대’ 간부들과 함께 찍은 사진.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일부 정계·시민운동 뛰어들어

## 광주은행 ‘민주 노조’ 결성도

당시 소대원 20~30명을 이끌고 금  
남로와 중앙로 등을 누비며 전투경  
찰과 대치했다. 시위 대열의 학생들  
과 시민들을 보호하는 게 주된 임무  
였다. 매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  
벽 2시까지 시위를 벌인 뒤 학교에  
들어오면 은음이 파김치였지만, 다  
음날을 준비하며 밤을 꼬박 새는 날  
이 비일비재했다.

박씨는 항쟁 후 전남대 ‘오월대’

대장을 맡아 89년 11월 민정당 정  
치연수원 습격에 나섰다가 1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뒤늦게 복학, 졸업  
한 그는 96년 금호건설에 입사했다  
가 독립했다.

분노한 은행 직원들은 인사부 대  
리였던 고(故) 김현철(초대 노조위  
원장·98년 사망)씨와 1년차 행원  
이었던 이형석(47·전 광주시의회  
의장)씨 등을 중심으로 ‘민주노조’  
를 결성했다. 이들은 6월 항쟁 내내  
직원들과 함께 금납로 시위에 참여  
했고, 이후 노조 위원장 직선제를  
쟁취해 오늘에 이른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금납로에 ‘넥타이 부대’로 등장  
했던 광주은행 노조원들도 민중의  
힘을 이끌어 낸 기폭제였다. 당시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련은 정부의  
‘4·13 호헌 조치’를 지지하는 등 사  
실상 ‘여름 노조’였다.

분노한 은행 직원들은 인사부 대  
리였던 고(故) 김현철(초대 노조위  
원장·98년 사망)씨와 1년차 행원  
이었던 이형석(47·전 광주시의회  
의장)씨 등을 중심으로 ‘민주노조’  
를 결성했다. 이들은 6월 항쟁 내내  
직원들과 함께 금납로 시위에 참여  
했고, 이후 노조 위원장 직선제를  
쟁취해 오늘에 이른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40kg 감량’ TV 출연 여고생

## ‘자살 원인’ 놓고 네티즌 논란

일반인들이 장기를 겨루는 프  
로그램인 SBS TV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한 여고생 이 모  
(16)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  
실이 전해지면서 자살 원인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이 프로그램에 출연, 3

들은 모 인기그룹의 팬들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양이 방송  
출연 후 이 그룹의 한 멤버와 다  
정하게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퍼  
지면서 그룹 팬들로부터 악플에  
시달렸다는 진술이 유족과 친구  
들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놀라운 대회 스타킹’의 제작진  
은 “이양이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  
다는 등 자신의 디아이트에 대  
한 각종 루머에 괴로워했다고 한  
다”면서 “인터넷에 공개된 인기  
그룹 멤버와 찍은 사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있었지만 디아이  
트에 따른 우울증이 가장 커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또 “~스타킹” 홈페이지  
에서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어 마음이 아프다. 부  
모님 죄송해요. 그동안 괴롭혀서  
너무 미안해요. 심적으로 고통을  
겪어서 미안해요”라고 말했다.  
자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

**나인참** 7229  
김충우



## 가출 청소년 ‘티켓 영업’

## 다방 업주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6일 가출 청소년  
에게 속칭 ‘티켓 영업’을 시킨 다방 업  
주 김모(여·25·광주시 북구 일동)씨

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  
월부터 북구 S다방에서 김모(17)양

등 10대 2명 등 4명을 고용, 남성 30  
여 명을 상대로 ‘티켓 영업’을 시킨 혐  
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화대비 명복  
으로 1시간에 8만원을 받고 김양 등  
에게 윤락행위를 시켰으며, 이 가운  
데 5만원을 챙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여종업원이 “빚을 갚  
기 위해 ‘티켓 영업’을 했다”고 주장  
함에 따라 다방 업주 등을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도어 대리점

▶문서(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리**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창(062)525-9002 ▶전주창(063)271-5051

민취 잠든 남편 옆에서 성폭행 당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가  
정집에 침입, 남편  
옆에서 자고 있던 부인을 성폭행하고  
도주.

○…30대 가정주부 A씨는 6일 새벽  
4시께 자신의 냄새를 더듬는 손길을 남  
편으로 착각, 부부관계에 응했으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뗐더니 30  
대로 보이는 남자가 창문을 넘어 달  
아냈다”며 광주 광산경찰에 신고.

○…A씨 부부는 이날 새벽까지 술  
을 마시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성폭행 당시 남편은 술에 취해 아  
무도 모른 채 깊이 잠든 상태였다.

○…경찰은 금품을 훔쳐려 들어온  
절도범이 속옷만 입은 여성의 냄새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위험  
을 무릅쓰고 일(?)을 벌인 것으로 추  
정.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감금된 채 성매매 당한 여중생

## 성매수자에게도 폭행 당해

## 경찰, 흡피 협박 글 조사

6개월 동안 모델에 감금된 채 성매  
매를 강요당했던 광주 A양(14)이 성  
매수자에게도 폭행당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A양으로부터  
“지난 3~4월에 광주 R모델에서 만  
난 30대 중성의 남성이 성 관계 후 아  
무런 까닭 없이 손과 발로 온몸을 때  
렸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내역과 채  
팅 사이트 기록을 확인, 이 남자의 신  
원 파악에 들어갔으며 폭행이 사실일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A양의 미니흡피에 성매수 등 사  
건 관계자들이 협박성 글을 남긴 점  
을 종시,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  
다.

경찰은 성매수 횟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800여 명의 성 매수자  
중 6일 현재 100여 명에게 소환통보  
를 했으며, 이 가운데 60여 명에 대해  
서는 1차 조사를 마쳤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방송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CO. COMMUNITY MEDIA CENTER

#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007년 6월 12일, 역동하는 젊음의 도시 광주에서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이 열립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에 의한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과 방송제작 지원, 방송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시청자와 방송을 보다 가깝게 할 것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 . . . .

시청자에 대한 방송제작 지원

미디어교육

장애인을 위한 방송제작 지원

각종 미디어 체험

|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기념 세미나 | |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 |

2007. 6. 11.(월) 오후 3:00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소회의실

주제 : 1.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

2.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운영 1년 평가

